

한-독, 나노포토닉스 · 신경과학 공동연구

제3차 한국-독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및 <2005 한-독 과학기술포럼>이 9월 19-20일 독일 베를린 레디슨호텔에서 개최돼 나노(Nano), 연료전지 등 과학기술 공동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대표단은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신경과학(Neuroscience), 환경(Remote Sensing), 나노포토닉스(Nanophotonics) 분야에서 포럼을 가졌으며 로봇틱스(Robotics), 핵융합, IT, 연료전지(SOFC) 분야에서도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논의했다.

또 2004년 합의한 인적교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한-독 과학기술협력촉진 프로그램의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Visit Helmholtz Award 프로그램에 이어 2005년에는 Visit KIST Award를 제안하고 한-독 위원회가 지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5명 내외의 독일 대학원생을 한국에 단기연수생으로 파견해 협력을 확대키로 합의했다.

공동연구와 관련해서는 향후 신경과학, 나노포토닉스, 환경(해양)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협력 특히 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공동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제4차 한독과학기술협위는 2005년 10월경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유승 KIST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 대표단에는 김주한 과학기술부 구주기술협력과장, 염기대 한국 해양연구원장, 강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송기동 과학기술부 독일주재 과학관, 손승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장, 노형민 KIST 시스템연구부장 등 17명이 포함됐다.

Jurgen Mlynec 헬름홀츠연구협회 총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일 대표단에는 Walter Monig 독일 교육과학부(BMBF) 부국장, Christian Stienen 독일 교육과학부(BMBF) 과장, Gereon Fink 올리히 의학연구소장, Gerd Hirzinger 항공우주연구소(DLR) 산하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소 소장, Alfred Forchel 유스투스-리빅 뷔어츠부르그대학 기술물리학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화학저널 2005/09/26>